

보도 일시	2022. 5. 16.(월) 10:00	배포 일시	2022. 5. 16.(월) 10:00
담당 부서	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	책임자	과 장 김용석 (02-2181-0031)
		담당자	사무관 김태진 (02-2181-0033)

기상청, 국제기상인재 양성으로 한국 위상 높인다 - 아시아지역 개도국 위험기상 대응역량 향상 -

- 기상청(청장 박광석)은 아시아 지역 3개국 30명의 실무예보관을 대상으로 「외국인 기상예보관 과정」 과 「외국인 기상레이더 자료 활용능력 향상과정」 을 운영한다.
 - 교육과정은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, 예보관 과정은 5월 17일 ~ 5월 31일까지, 레이더 과정은 6월 7일 ~ 6월 20일까지 각 2주씩 진행된다.
 - ※ 예보관 과정(15명): 인도네시아(6명), 필리핀(4명), 베트남(5명)
 - ※ 레이더 과정(15명): 인도네시아(7명), 필리핀(3명), 베트남(5명)
 - 주요 교육내용은 △대한민국의 일기예보 실무 △한국형 수치예보 소개 및 자료분석 활용 △위성·레이더 자료 활용 기법 등이다.
- 기상청은 공적개발원조(ODA) 사업의 일환으로 1998년부터 아시아, 아프리카 지역 등의 기상청 직원을 대상으로 국제교육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, 2021년까지 총 73개국 456명이 참여했다.
 - 기상청은 세계 기상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국제적 역할을 인정받아 2015년 세계기상기구(WMO)로부터 교육훈련센터(RTC-Korea)로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다.
- 박광석 기상청장은 “세계기상기구 교육훈련센터로서 개도국의 일기예보 역량과 위험기상 대응역량 향상에 기여하여, 대한민국 기상청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” 라고 밝혔다.